

투데이 칼럼

국보도 길 나서는 시대, '진묘수'의 고향 장수를 제안한다

공주 무령왕릉을 지키던 상상의 동물, 진묘수(鎭墓獸). 어둠 속에서 왕의 길을 수호하고, 떠나는 이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조각된 이 돌집승은 오늘날 국립공주박물관의 상징이자 마스코트로 살아 있다. 그러나 진묘수에게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출발지의 문제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정리한 최근의 학술 보고에 따르면, 진묘수(석수)와 지석의 제작은 모두 각설 석암이며, 이 암석은 공주 일대에서 산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대에서 다량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공주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장수 또는 인근 지역에서 돌을 조달해 제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이 대목은 단순한 산지 추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보급 문화유산의 서사 속에 전북 장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진묘수는 더 이상 공주만의 상징이 아니라, 제작과 이동, 교류의 경로를 통해 장수와 연결되는 유산이 될 가능성을 품게 됐다.

여기에 고대 기록이 던지는 한 줄의 문장도 흥미롭다. '일본서기'에는 반파국(伴波國)이 '진기한 보물(珍寶)'을 바치며 기문(己汶)의 땅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 시기는 무령왕이 남하 정책을 펼치며 전북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때와 맞물린다. 곧바로 그 진보가 진묘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 훈 식
장수군수

다만 장수가 '석재의 고향'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진보'라는 단어가 남기는 여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장수는 이제 막연한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기록이 함께 건드리기 시작한 역사적 출발선에 서 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장수에서 진묘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을까." 그동안 국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국립박물관, 지자체가 협력해 국보급 문화유산을 지역 국립박물관에서 소개하는 '국보 순회 전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존을 이유로 멈춰 세우기보다, 적극행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읽힌다.

핵심은 분명하다. 좋은 문화유산은 수도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에서도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수역사전시관 특별전 '진묘수의 고향 나들이'

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다. 국립공주박물관과 장수군이 협력해 '실현 가능한 방식의 문화 교류'를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보존과 안전 기준이 충족된다면 실물 전시를 1순위로 검토할 수 있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고정밀 복제품, 3D 스캔, 영상, AR 등으로 '가장 진짜에 가까운 전시'를 구성할 수 있다. 핵심은 무조건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민낯을 생사시키는 데 있다.

전시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관람객이 전시장을 나서며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첫째, 진묘수는 무령왕릉을 지키던 수문장이다.

둘째, 그 몸통의 돌이 장수와 연결될 가능성이 켜졌다.

셋째, '일본서기'의 '진보(珍寶)' 기록이 상상력을 더한다.

이렇게 정리되는 순간, 전시는 하나의 역사 추리극이 된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도 질문을 품게 된다. '국보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콘

텐츠다. 장수는 더 이상 단순한 원료 산지가 아니다. 국보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는 파트너 자리 잡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과제도 있다. 진묘수 머리 위에 얹힌 나뭇가지 형태의 철제 뿔이다. "그 철은 어디에서 왔을까. 장수의 제철 유적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다. 철 성분 분석과 제작 흔적 조사, 장수 지역 제련 부산물과의 비교 연구가 이뤄진다면, 장수는 '돌의 고향'을 넘어 백제와 연결되는 '기술의 현장'으로까지 확장된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 연관성이 약하더라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를 구분하는 과정 자체가 서사를 단단하게 만든다.

전시의 깊이를 더할 소재도 있다. 완주 상동에서 확인된 청동칼 거꾸집과 녹반석 비루 역시 각설석암·곱돌 계열 석재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장수 일대를 산지로 한 돌이 왕릉 조형물뿐 아니라 제작 기술과 문방 문화, 생활과 지식의 기반까지 떠받쳐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결이 전시에 담긴다면 '진묘수의 고향 나들이'는 한 점의 국보를 넘어 전북권 석재 문화와 기술 네트워크를 조망하는 특별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

국보도 길은 나서는 시대다. 공주의 수호신 진묘수가 장수에 한 번 걸여오는 순간, 장수의 질문은 전북의 자선이 되고, 나아가 지방 문화 교류의 하나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상상해 볼 때다.

사설

어느 초호화 생활

인천본부세관이 위조 명품 7만 7,000여점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 165억원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텔에서 호화 생활을 누려온 걸로 조사됐다.

세관 직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밀 창고 안에 옷과 신발이 쌓여 있었다. 얼핏 보면 정상적인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보이지만 전부 위조 상품들이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을 판매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불구속 입건한 공범 3명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방과 옷, 신발 등 위조 상품 7만7,000여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으로 치면 시가 1,200억원 규모다.

경영지원, 무역, 상품기획 등으로

진짜 회사처럼 역할을 나눠 유통망을 갖췄고, 소꿉물이나 오피로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165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은 타인 명의 계좌로 숨기거나 세탁했다. 특히, 추징을 피하려고 비트 코인과 이더리움 등 5억여원치의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에 은닉·보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돈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텔 2채, 스포츠카를 사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자산 80억 원어치를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있던 위조 상품 5,000여점과 전자지갑을 압수했다.

인천세관은 주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관계자들이 상호만 바꿔 범행을 이어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값 한 톨 당 100만원 시대

국내 금값이 한 톨(3.75g)당 1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예산 낭비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황금 조형물이 화려하게 재조명받고 있다.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멈춰선 금광의 곡괭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한 곳은 전남 함평군이다.

함평군이 2008년 순금 162kg을 들여 제작한 '황금박쥐상'은 당시 약 27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당시에는 '관광객도 안 오는데 혈세만 쏟아부었다'는 지역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18년이 흐른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금값이 한 톨당 103만원(26일 기준)을 넘어하면서 황금박쥐상의 순금 가치는 약 386

억7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제작비 대비 약 14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제 황금박쥐상은 애플단지나 아닌 함평군의 가장 강력한 '재테크 자산'이자 상징적인 생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때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었으나 높은 채굴 비용 때문에 쇠락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5년 만에 신규 지하 금광인 '칼라 셀로즈'가 가동을 시작했다.

은스당 5000달러(약 724만원)를 넘보는 금값은 '깊게 파야 해서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든다'며 외면받던 남아공 금광의 경제성을 다시 살려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NATO 사무총장,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미르크 뤼터(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정치범 석방 촉구 시위하는 베네수엘라 대학생들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학생들이 정치범인 이유로 구금 중인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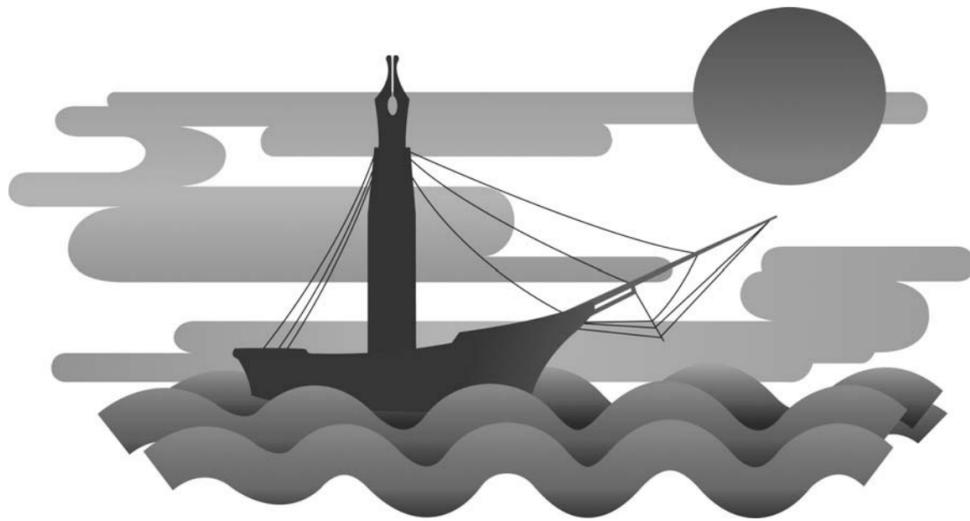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